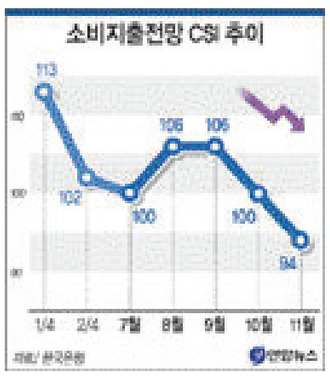
고개 숙인 실물경제 … 한국경제 늪에 빠지나

부실기업 구조조정 실업자 급증
수출 증가율도 마이너스 가능성
부동산값 급락 … 소비심리 냉각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는 실물경제가 완연한 침체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부실이 제거되는 과정에서 기업부문의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실업자가 증가하면서 내수침체의 골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년 상반기에는 구조조정의 본격화로 취업자수가 감소하고 글로벌 경기침체로 수출 증가율도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부동산가격의 하락세가 이어질 경우 실물경기는 물론 금융기관의 건전성까지 타격을 주면서 부동산발(發) 경기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경기침체 본격화 … '고용감소' 쇼크=지난달 30일 경제예측 기관들에 따르면 내년 연간 성장률은 2%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전분기 대비 경제성장률은 올해 4분기나 내년 1분기에 마이너스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고용감소는 소득감소로 이어져 경기를 더욱 둔화시키고 이는 기업들의 투자를 짓누르게 된다는 점에서 경제 전반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손 연구원은 지적했다.

◇수출증가율 '마이너스' 전락하나=올해까지 20% 안팎의 증가율을 유지하며 경제성장을 이끌어왔던 수출이 급속히 감속할 수 있다는 점은 내년 경제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다.

주요 예측기관들은 내년도 수출증가율 전망치를 일제히 한자릿대로 낮춘 상황이다. 연간으로 한자릿대 증가율을 기록하면 이는 2002년(8.0%) 이후 7년만에 처음이다.

산업연구원은 내년도 수출증가율은 4.7%로, 삼성경제연구소는 3.2%로 각각 제시했다. SK경영연구소는 내년 수출이 올해보다 2.7% 감소할 것이라며 국내 경기가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타격을 본격적으로 받으면서 바닥권으로 추락한다는 것이다.

경기가 바닥으로 추락하면서 내년 초에는 기업과 자영업 부문 등에서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증가폭은 내년 상반기에 마이너스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국내 경제연구기관 중 유일하게 마이너스 성장을 전망했다.

수출이 감소세로 돌아섰다는 것은 국내 성장엔진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부동산시장 2차 충격 우려"=부동산 경기는 내년 상반기까지 하락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부동산가격 하락은 소비심리를 냉각시킬 뿐 아니라 저축은행과 일반은행 등 금융기관에도 타격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당국이 잔뜩 긴장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이 시작된다는 점도 부담스러운 요인으로 지적됐다. 부동산114의 김희선 전무는 "주택담보대출이 2005년 말과 2006년에 많았기 때문에 올해 말부터 원리금 상환이 시작된다"면서 "이는 주택가격의 하락요인이 될 수 있으며 경제 전반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가계·기업 빚' 금융불안 복병

주택대출 상환·中企 자금난 허덕

실물경기가 본격적인 침체기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금융시장의 불안이 다시 커지고 있다.

◇빚 상환 허덕…금융불안 키우나=지난달 30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채의 상장잔액은 지난달 27일 현재 182조9천억원이다. 만기 도래액은 내년 1분기 21조2천억원으로 올해 1분기 18조4천억원, 4분기 20조7천억원보다 많다.

월별로는 11월 7조2천억원에서 12월 6조1천억원으로 감소하다가 내년 1월에는 9조7천억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기업들이 발행한 상장 회사채의 만기 도래액은 내년 1분기 3조9천억원으로 올해 1분기 3조7천억원, 4분기 3조원을 웃돌고 있다.

정부가 1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를 조성하고 한국은행도 지원할 계획이지만 자금시장 경색을 푸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주택담보대출도 금융시장의 복병이다. 지난 9월 말 현재 은행들의 가계대출잔액은 383조6천억원으로 이중 주택담보대출이 234조6천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의 40% 가량을 차지하는 일시 상환대출의 만기가 보통 3년이고 2005~2006년 대출이 급증한 점을 감안할 때 내년에 만기금액이 40조~5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돈 빌리기 더 어려워=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금융기관이 연말 결산까지 맞은 것은 자금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들에 악재다.

은행들은 12월말 기준으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11~12%로 끌어올리기 위해 신규대출을 억제하며 후순위채 발행에 나서고 있다. 기업들로서는 은행에서 돈 빌리기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기업 구조조정이 점차 임박하는 것도 자금시장을 더욱 위축시킬 것으로 보인다. 신성건설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C&중공업과 C&우방이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을 각각 신청한 상태다. 이들 기업에 대한 채무 재조정이 이뤄지면 채권금융기관은 자산 건전성이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여신관리를 강화하게 된다. /연합뉴스

부실기업 '해결사' 구조조정委 부활?

건설·조선·IT업체 부실 확산 사전 차단

실물경기가 올해 연말과 내년초에 빠르게 얼어붙으면서 우리 경제가 향후 3~4개월 안으로 고비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월별 고용은 2003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으며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도 마이너스 행진을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은 실물경기 하강, 고용불안과 맞물리면서 '2차 충격'을 맞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로 인해 건설업체들이 조만간 더이상 연명하지 못하는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런 현상은 다른 업종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과거 외환위기 당시에 기업들의 생사를 판정했던 기업구조조정위원회를 부활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경기침체의 여파가 건설사와 조선사에 이어 자동차·반도체 등 정보기술(IT) 업체 등 다른 업종으로 확산되고 특히 중소기업이 큰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채권금융기관과 민간 주도로 기업 지원과 구조조정을 총괄하는 기구의 설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과거처럼 별도 기구를 만들거나 현재 운영되는 채권단 협의회에 민간 전문가를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기구를 확대해 이 곳에서 채권금융기관들의 의견차이를 조정하면서 부실 또는 회생 가능한 기업의 처리방향을 결정하는 방안이 있다"고 설명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올 연말까지는 건설업체들이 어떻게든 위기를 넘기더라도 내년 초에는 쓰러지는 기업들이 많이 나올 것"이라며 "그 때가 기업위기의 최절정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저축은행, 종금사 등 2금융권에서는 건설업체가 대주단에 가입하기 전에 채권을 회수하려는 움직임마저 나타나고 있다.

2금융권의 유동성 사정이 좋지 않은 가운데 건설사들이 대주단에 가입하게 되면 1년간 채권회수가 어려워지는 만큼 서두르고 있는 것이라고 금융권 관계자는 전했다. /연합뉴스

기업 생사 여탈권 쥔 막강한 조직

기업구조조정위란?

기업구조조정위는 1998년 6월 많은 기업이 부도위기에 몰리자 236개 채권 금융기관들이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협약'을 체결해 발족시킨 기구로, 199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됐다.

채권 금융기관들이 기업 회생 가능성과 워크아웃 추진 계획에 대해 이견이 생겨 조정 신청을 하면 기업구조조정위가 퇴출 여부 등을 결정했다. 회생할 수 있는 기업으로 판정되면 최장 6개월까지 부도를 유예해줬으며 '회생 불가'로 판정되면 퇴출됐다. 한마디로 기업들의 생사 여탈권을 쥔 막강한 조직이었던 셈이다.

위원장 1명과 금융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하거나 회계사, 변호사, 신용평가회사 또는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기업 구조조정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정부가 이번에 검토하는 기구는 민간이 중심이 돼 기업 구조조정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컨트롤 타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현대차 '글로벌 넘버원 품질 체험단' 모집 현대자동차는 12월 한달동안 1천명의 '글로벌 넘버원 품질체험단'을 모집해 차량 시승과 특별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X-mas 사랑드림 이벤트'로 고객들에게 푸짐한 선물을 제공한다. 품질체험단에 참여를 원하는 고객은 1일부터 오는 9일까지 각 지점과 대리점을 방문해 이벤트에 신청할 수 있다. /연합뉴스

정부 실물경제 직접 챙긴다

지경부, 지원단 발족 … 대대적 현장 점검 활동 나서

실물경제가 빠르게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식경제부가 산업현장 중심의 종합지원에 나선다.

지식경제부는 지난달 30일 실물경제 분야의 위기대응을 위한 사령탑으로 '실물경제 종합지원단'을 출범시키고 대대적인 산업현장 점검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실물경제 종합지원단은 지경부 임채민 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지경부내 조직으로 총괄팀과 현장점검팀, 위기분석팀 등 3개 팀으로 구성되며 이미 운영중인 업종별·기능별 위기대응반과 기업도우미센터를 통합해 기능을 확대한다.

지경부는 본부 조직과 관계 기관의 인력과 조직, 자원을 모두 동원하는 상시적 조직인 종합지원단을 통해 산업현장의 실상에 기반을 둔 문제의 발굴과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종합지원단은 전국 각지의 산업현장을 중심으로 실물경제의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현장중심의 경제위기 극복활동을 대대적으로 펼칠 방침이다.

우선 1일부터 자동차부품과 조선기자재, 전자부품 등을 생산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전국적인 현장점검에 나선다. 이는 미국 등 주력수출 시장의 침체와 내수부진으로 이들 산업의 경영여건이 크게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장점검은 종합지원단이 지방 중소기업청, 업종별 협회, 컨설턴트 등 전문가와 함께 실시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글로벌 경기침체의 영향이 큰 업종과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의 산업단지공단 등 기업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종합지원단은 지역행정기관과 경제단체, 금융기관 등과도 협력채널을 구축해 산업현장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분석해 산업적 시각에 입각한 대안제시를 통해 관계부처와 협조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경부는 모든 직원이 전화 또는 현장방문 등을 통해 담당분야에서 3개 이상 기업을 직접 접촉해 기업들의 건의사항을 받아 해결책을 검토하는 '홈닥터제'도 실시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내년 하반기 이전 유가 인상 없다"

OPEC 사무총장 … 석유 감산 발표 연기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지난달 29일 이집트 카이로에서 비공식 석유장관회담을 가졌지만 당초 예상됐던 추가 감산 발표는 내달로 미뤄졌다.

알제리의 석유장관인 차킵 켈릴 OPEC 의장은 회의가 끝난 뒤 원유 생산 감축에 대한 결정은 오는 17일 알제리에서 열리는 회의까지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켈릴 의장은 이어 "이달 회의에서 원유의 공급과 수요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압달라 살렘 엘-바드리 OPEC 사무총장은 "유가 인상이 내년 하반기 이전에는 시작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엘-바드리 사무총장은 이어 석유장관들이 석유 감산 문제를 내달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한데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덧붙였다. 국제 원유가는 지난 7월 배럴당 147달러까지 치솟은 이후 하락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연합뉴스

소득탈루 학원 세무조사

국세청 거액의 수강료를 받아내면서 현금만 받거나 입금통장을 달리해 소득을 빼돌리던 학원 사업자들에 대해 국세청이 기획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에는 최고 10억대가 넘는 돈을 벌어들이는 일부 스타강사들도 포함됐으며 이들 외에 일부 진료과목의 고소득 의사들도 조사선상에 올랐다.

국세청은 지난달 30일 탈루혐의가 큰 학원 사업자 등 전국의 고소득 자영업자 147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8일부터 세무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국세청이 2005년 12월 시작한 고소득 자영업자 대상 세무조사로는 9번째로, 학원들이 주된 대상으로 선정됐다.

조사대상 가운데 60~70곳이 입시학원을 비롯한 학원사업자이며 이 가운데는 프랜차이즈형 대형 학원이나 외국계 펀드로부터 투자를 받은 유명학원 등 다양한 종류의 학원은 물론, 학원가에서 거액의 보수를 받는 몇몇 스타강사들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소득 탈루혐의가 있는 피부과 병·의원과 한의원들도 학원들과 함께 조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로또복권 (제313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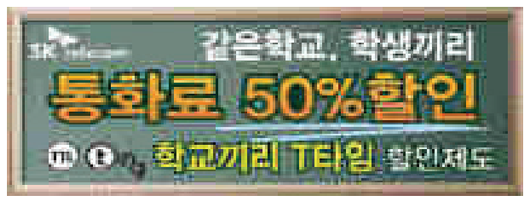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숫자	당첨자 수
9	17	34	35	43	45	2	
등 위						당첨금(원)	
1	6개 숫자 일치					1,715,422,800	6
2	5개숫자+ 보너스 숫자일치					65,977,800	26
3	5개 숫자 일치					1,531,628	1,120
4	4개 숫자 일치					61,548	55,743
5	3개 숫자 일치					5,000	936,364

팝콘복권 (제136회)

등위	당첨금(원)	당첨번호	
1	5억	5조	351612
2	1억	3조	532448
		2조	641837
3	1천만	1등과 조가 다른 번호	
4	1백만	각조	30050
5	50만	각조	2582
6	2천	각조	51
		각조	21
		각조	33
7	1천	각조	0
		각조	5
		각조	6

함께 일합시다

Recruiting Gwangju Network 062.JOBKOREA.co.kr™

업 체 명	모 집 분 야	자격 및 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혜성정보통신	일반사무 및 매장관리 직원 (경력자 우대)	고졸/경력무관	1400~1600	12/02	010-6622-8285
미래에셋생명-본사	[저축&재태크]전략상담 보장150만,평균450만원	고졸/경력무관	4000~5000	12/02	02-3425-0477
㈜하나애드컴	광고 디자이너 신입/경력 직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2/02	062-974-0041
㈜대창 E&T	총무팀 - 4대보험,급여,인사 담당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2/02	062-383-6831
㈜서평	파리바게트 제빵제조기사 정규직 사원[광주]	고졸/경력무관	1600~1800	12/02	042-626-9194
변지유 뷰틱	패션디자이너 경력 직원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2/02	062-222-7205
뚜레쥬르광주영업팀	뚜레쥬르 광주영업팀 가맹점 교육사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2/04	062-974-4866
디자인코어	[주5일]웹디자이너 및 프로그램개발자(PHP)	고졸/경력무관	1800~2000	12/04	062-228-0888
㈜테크노밸리	기술영업(전산시스템 유지보수.설치.관리.기술영업)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2/05	062-251-0417
윤선생영어교실	[광주/전남]영어상담 및 관리선생님	초대졸/경력무관	2000~2200	12/05	062-526-0566
㈜휴먼라이텍	해외영업.해외업무관리(영어능통자우대)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2/05	062-974-1297
케이무역	인테리어 현장감리 및 견적작업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2/07	062-944-0030
㈜기분좋은엘리베이터	승강기 유지보수 경력직	고졸/경력2년	회사내규	12/07	062-383-1482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